

연중 제32주일 복음 나누기

“저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마르 12,43)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발표합니다)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I) - 마르 12,38-44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 38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겹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39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40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41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돈을 넣었다.
42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렵톤 두 닢을 넣었다.
그것은 콰드란스 한 닢인 셈이다.
43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44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세밀히 읽습니다.
- 처음부터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읽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약 5분 정도)
- 한 사람씩 특별히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율법학자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선생님”(랍비)이라 부르며 인사했고, 율법학자가 잔칫집에 오면 매우 영광스럽게 여겨 상좌에 모셨다 하니(200주년 신약성서 주해) 그 시대의 회당, 모세의 자리에서 율법을 해석하며 민중들의 선생 노릇을 하던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존경받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만합니다. 그들을 신앙인의 표상으로 여기고, 닮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율법학자들을 혹독하게 비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사받기를 즐기고(명예욕을 충족시키려 함), 윗자리를 원하며 과부들(그 시대에 의

지할 곳 없는 과부와 고아는 우선적 보호의 대상이었습니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하는 모습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니며, 존경할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들의 모습에서 장황한 기도를 하는 위선적인 세리와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를 바치던 세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루카 18,9-14). 우리는 율법학자들을 닮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43절)

성전을 떠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뜰에 있던 이 헌금바구니는 모두 열세 개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자선의 헌금바구니였습니다(암브로시오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부자들이 많은 돈을 애공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의 애공(불쌍히 여김)을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자들이 낸 큰돈이나 그 외의 사람들의 헌금보다 과부가 낸 렘톤 두 닢을 더 크게 보십니다.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헌금한 이와 ‘생활비를 모두 다’ 헌금한 이의 마음이 짐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과부의 헌금에는 과시욕이 없으며, 보잘 것 없는 금액이라는 초라함도 생활비를 내놓은 것에 대한 걱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야말로 정성을 다하여 전부를 내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전부”를 내놓을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과부는 지금 자신의 처지조차도 허락하신 하느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자신의 전 생활을 하느님께 봉헌한 것입니다. “일부”가 아닌 “전부”를 말합니다.

성전에서 봉헌하는 것을 물질 예물로 국한시키지 말고 봉사, 시간, 기도 등의 넓은 의미로 해석해 보았으면 합니다. 소유가 중요시된 사회에서 우리는 주고받는 것(give-and-take), 받기 위해 주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하느님께 헌금하는 것도 나중에 더 많은 것을 하느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라면 과연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께 완전히 자신을 헌신할 수 있을까요?(선포와 봉사, 2006)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남을 의식하고, 좋게 보이려 포장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신앙생활을 경계하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놓고 의탁할 수 있는 진정한 봉헌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삶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 목상나누기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체험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 지금까지 나는 하느님께 무엇을 봉헌해왔는지 나눠주십시오.(헌금, 시간, 정성 등)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7. 마침기도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8. 안건토의

9. 기타토의(공지사항)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